

특집

▶면에서 이어짐

사실 신방과 1기 동문들에게 캠퍼스는 완전히 낯설기만 한 공간이 더 많았다. Space21도 그렇지만 평화의 전당이나 정경대학처럼 지금 재학생에게 익숙하기만한 공간도 당시엔 없었다. 우리대학 건물 특유의 화려함은 졸업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웅장한 외관과 더불어 공연장의 상들리에를 바라보느라 연신 고개가 젓혀졌다. 평화의 전당에서 유명 연예인의 공연이 술하게 열린다는 말에 노천극장이나 네오르네상스관(과거 체육대학) 건물에서 열린 행사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체육대학에서 가수들이 공연하고 바둑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며 평화의 전당과 과거 체육대학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했다.

동문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단연 정경대학이었다. 신방과가 막 신설되었을 당시에는 따로 정경대학관이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박애숙(신문방송학 65) 동문은 “정경대가 따로 있었던 시절도 아니어서 본관에서 수업을 들었다”며 “정치론 같은 수업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함께 듣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1965년의 신문방송학과는 모두에게 생소한 학과였다. 1954년 홍익대에 신문학과가 국내 처음으로 개설됐다. 뒤이어 이화여대, 한양대, 고려대, 다음이 우리학교였으니, 학문 자체가 한국에서 생소했던 셈이다. 구체적인 학과 커리큘럼도 정착되지 않았던 상황을 두고 김성희 동문은 “당시 우리과 동기들은 굉장한 개척자였다”라고 평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 학문에, 앞으로의 길도 명확하지 않은 학과에 용감히 뛰어든 그들은 가히 개척자의 면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걱정과는 달리 당시 신방과는 개척자들에게 서툴지만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했다. 박애숙 동문은 “당시 학과장님이 저널리스트는 여러 분야에 조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며 “사진은 물론 음악과 미술, 심지어는 레크레이션이라는 과목에서 사교댄스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래성(신문방송학 65) 동문 역시 “신문학개론이나 방송론 같은 학과수업 뿐 아니라 KBS 사장 같은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 특강을 많이 진행했었다”고 당시 교육상황을 언급했다.

이래성 동문은 정경대학을 앞에 두고 “학생들이 언론정보학과를 선호하느냐”고 물었다. 신방과에서 시작된 언론정보학과가 하나의 학과로서 내실을 잘 갖추어 이어졌는가 하는 뜻을 내포한 질문이었다. 생소하고 불안정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지금도 캠퍼스 내에 굳건히 자리 잡은 정경대학과 언론정보학과 모습이 그 질문에 대신 답했다.



1969년 신문방송학 1기 졸업사진을 찍었던 본관 앞에 다시 모인 동기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며 세월을 회상했다.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어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학과였으며 다채로운 교육은 매스컴에 눈을 뜨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언론정보학과가 지금의 위상을 차지한 데는 신방과를 선택한 이들, 즉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래성 동문은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어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학과였다”며 “다채로운 교육은 매스컴에 눈을 뜨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래성 동문은 언론인의 꿈을 갖고 신방과에 진학, 졸업 후 광고·홍보 계열에 종사했다.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다”는 박상희(신문방송학 65) 동문은 졸업 후 강릉MBC 아나운서가 되며 꿈을 이뤘다. “동기들이 함께 꿈꿨던 언론 계열에 처음 취업한 사례였기에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는 박상희 동문은 이후 포항, 대전 등 지역 방송국과 교통방송 지방 방송국 설립위원을 역임하며 지금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신방과가 이룬 쾌거였다. 이

러한 교육과 열정의 결실이 모여 오늘날의 언론정보학과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동문들의 눈길을 붙잡은 의문의 아이템은 다름 아닌 개교 70주년 기념사업단 학생 서포터즈로 행사에 함께한 학생이 입고 있던 ‘과잠’이었다. “우리는 경희대학교 배지를 항상 착용했었다”면서 지금은 모든 재학생이 맞추는 상징이 없다는 점에 신기해하면서도 “우리도 과잠 하나씩 맞추까?”하며 웃었다.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던 배지는 지금은 각 학과의 특성과 개성까지 드러나는 과잠으로 변했다.

박상희 동문은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하니 많이 바뀐 모습이 생소하지만 대학 시절 강의를 들던 기억, 아름다운 캠퍼스를 산책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감개 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생 서포터즈로 참여한 김소현(관광학 2018) 씨 역시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학교 방문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지금과의 유기성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졸업생은 변한 학교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추억은 생생했고 지나가는 까마득한 후배들의 얼굴에서 그때와 같은 열정도 보였다. 경희대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50년을 뛰어 넘어 변화와 동질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는 대학이, 대학 캠퍼스가 유구한 시간을 통해 가지게 된 가치다.

대학은 청춘이 머무는 곳이다. 만물이 푸른 봄철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봄이라는 계절이 오래 그러하듯 찰나의 시간으로 지나간다. 대학은 손 뻗으면 닿을 듯 한 내 젊은 날이 아로새겨진 곳이자, 새겨질 곳이다. 동시에 대학은 청춘이 머무는 곳, 찰나의 청춘들이 모여 언제나 봄인 만년설 아닌 만년봄의 공간이다. 개교 70주년의 문턱에서 오늘도 유구히 이어지고 있는 경희의 봄날을 바라본다.

#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로고에서부터 본문, 삽화, 영상 제작, 광고판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